# 영남불교계, 경자년 "힘찬 새 출발"

## 부산불교 · 울산불교 등 신년하례로 원력 다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 신년하례가 이어졌다. 사진은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모습.

경자년 새해를 맞아 부산과 울산 등 영남불교계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한 해 포교활동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6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부산불교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신년하례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불교문화축제에서 보여준 감동과 기쁨을 상기시키고, 올해는 더 힘차게 도약할 것을 서원했다. 이번 신년하례는 그 가능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역대 최대 인원인 1000여 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문화포교 방향과 불국토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내빈도 참가해 경자년 새 출발을 함께 했다.

또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신기열)와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이무영)에 공로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회장 경선 스님은 "지난 한 해 부산불교계는 불교문화대축제를 개최하며 부산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증명해 보였다"며 "우리는 뜨거

### 부산 하례 1000여 대중 모여
### 각 구군연합회 소통 다지기로
### 울산불교 각종 문화축제 계획
### 영도구연합회 자비나눔 나서

웠던 지난 경험을 통해 더욱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올해도 위로는 불법을 외호하고, 아래로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은 "새해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고 낮은 자세로 상대를 대하며 자비를 실천해 밝은 사회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새기고 실천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교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불교계는 올해 연등축제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팔관회 팔재계를 현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부산 16개 구군불교연합회 및 각 구군불교신도회와 소통하고 화합해 포교 사업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종단연합회(회장 산옹)은 1월 9일 롯데호텔울산 1층 오닉스룸에서 새해를 맞아 '울산불교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종단연합회는 2월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하며, 4월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태화강연등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와 전통음식문화한마당, 합창 및 차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수행 및 문화행사로 한 해를 장식한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1월 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2020년 신년조찬법회를 봉행했다. 신년조찬법회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새해를 맞아 모두가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발원했다. 아울러 나눔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신년조찬법회에서 이웃돕기성금 100만원과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 승보공양으로 성도절 기려

## 조계종부산聯 성도절 맞아
## 제9회 승보공양법회 봉행

깨달음을 상징하는 촛불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밝은 빛을 지나 재가불자들은 공양물을 들고 무대로 올라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온 세상에 지혜가 밝혀진 날, 거룩한 성도재일을 맞아 불자들은 공양으로 찬탄하며 깨달음의 길을 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1월 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화합을 주제로 열린 승보공양법회는 180여 명의 스님과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문과 승보공양 및 포교활동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특히 350여 명의 연합 합창단 공연은 승보공양법회를 더욱 여법하게 꾸몄다. 어린이들은 마치 스님들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중앙 무대에서는 승보공양의 의미를 살펴보는 새로운 뮤지컬이 선보여 대중에게 감동을 안겼다. 무대 뒤편에는 성인합창단이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웅장한 음성 공양으로 찬탄하며 행사장을 장엄했다.

지난해와 달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새롭게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장상'을 신설했다. 매년 시장상을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특별히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상이다. 처음으로 회장상을 수상한 팀은 BBS법소리다. BBS법소리는 BBS 부산불교방송의 전법 미디어 활동을 후원하는 재가단체로 2015년 10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사옥건립 및 진주중계소 개소식 등 활동을 후원하고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장상은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과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이 받았다.

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대중을 향해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父母未生前 本來眞面目)'이란 화두를 강조하며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를 몰두하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하면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고 설법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승보에 예경 올리는 일은 곧 불법을 향한 공경"이라며 "승보공양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불법승 삼보의 가치를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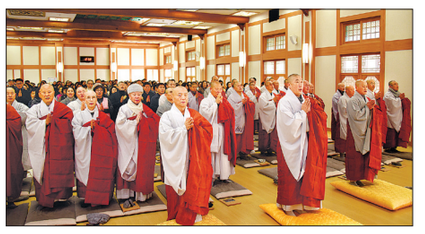
한편, 승보공양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 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서보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는 1월 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 화엄문도 발전 함께 이룬다

## 구례 화엄사, 화엄법회 및 제2회 화엄시상식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월 4일 화엄원에서 '불기 2564년 경자년 화엄법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2020화엄사 교구발전을 서원했다.〈사진〉 행사는 덕문 스님을 비롯한 교구 내 문도스님 50여 명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화엄시상식, 광주포교당 기금전달식, 신년법문이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신년법문을 통해 "경자년 한 해에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자.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회 화엄시상식에서는 벽암록, 종용록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번역한 지현 스님, 빠알리 율장을 강연하는 전재성 박사, 해군 제6항공전단 해항사서 군포교 하는 상월 스님, 해군사관학교 영내 사찰인 호국사, 서울역 목요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등이 수상했다. 또한 화엄사는 전통사경 활성화를 위해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에 김경호 작가를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나를 완성시키는 길' 수련회

## 한마음선원 청년회, 진주지원서 연합 개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년회(회장 박훈)는 구랍 28~30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청년회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수련회는 안양본원 소속 청년들과 진주지원 청년회가 연합으로 진행했으며, 1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련회 첫날 입재식에서 청년들은 '나를 완성시키는 길' 청규를 함께 낭독하며 각자 수련회를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을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관이다. 잠깐이지만 한 찰나에 부처님 마음이 돼라. 요동치는 마음을 지켜보는 힘이 중요하다"며 "놓친 근본을 지키고 나가야 마음이 통한다. 수련회 동안 일거수일투족 집중해서 체험해보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선화여고 졸업생 121명 배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교장 이봉오) 제32회 졸업식이 구랍 30일 동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최현진 학생 외 12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선화여고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명문사학으로 거듭나 청정한 마음을 닦는 교육도량으로 성장했다"며 "선화여고가 맑고, 향기롭게 청정한 학교로 성장하는데 동곡재단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는 2019학년도 제32회까지 총 5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BTN 불교라디오 울림

용 화 사

안양시민음악축전

1월 17일(금) 오후 6시 (안양 시민 선착순 무료입장)
안양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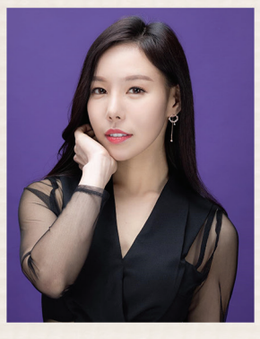

김흥국


박애리(국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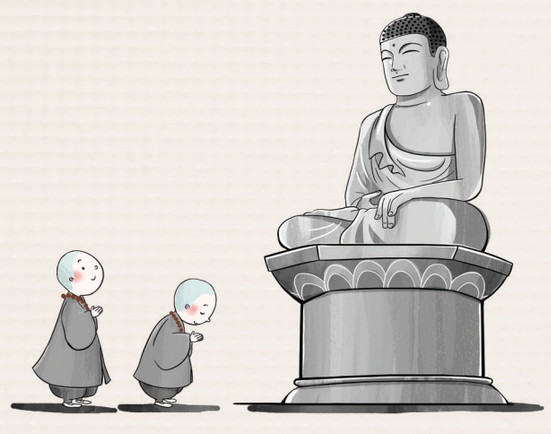

자전거 탄 풍경


조영구


요요미


한가빈


락드림(국악그룹)



용화사 031-444-9985 | BTN 불교TV & BTN 불교라디오